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전통도자기 싸게 사세요

(생활) 경기 이천 설봉산호수공원 일대에서 19일까지 계속되는 '제13회 이천도자기축제'에서는 실용성높은 분청 자기류를 대폭 할인 판매한다. 100여개 소규모 도예업체들의 제품을 한데 모아 놓은 이천민속도자기조합(0336-633-6381)과 고산요(0336-637-8218) 광주요(0336-632-7007) 심천요(0336-632-7086) 등의 업체가 참여.

민영주차장 요금 자율화

(생활) 서울시는 이달말부터 서울시내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계산을 위한 시간단위와 주차요금을 자율화해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요금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폐지되고 대신 주차장 관리자 주차요금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 3번 면허취소

(교통) 내년부터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단속되면 혈중알콜농도에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3년간 신규 면허취득도 금지된다. 규제개혁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청 규제정비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음주운전과 관련 뺑소니는 면허취소 및 5년간 면허취득금지 등의 기존 제재는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지하철역서 항공권 판매

(항공)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맺고 10일부터 지하철역 10곳에서 국내선 항공권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항공권판매역은 Δ5호선 광화문·여의도·여의나루·공덕·종로3가·왕십리·군자·천호 Δ7호선 상봉 Δ8호선 잠실 역이다.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면제

(통신) 내년부터는 휴대전화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보통신부는 6일 이동전화(휴대전화) 이용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와 주파수할당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동전화 이용자들은 그동안 연 1만2천원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해왔다.

술 마시면 진짜 배 나온다

(건강) '술을 마시면 배가 나온다'는 통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연세대 의대 허갑범 교수팀은 술을 마시는 남성은 나이와 체중, 흡연량이 같더라도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복부비만이 훨씬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30~60대 남성 152명을 조사한 결과 하루 25g이상 음주자는 고중성지방혈증 241mg/dl(데시리터)로 술을 마시지 않는 남성의 121mg/dl보다 두 배나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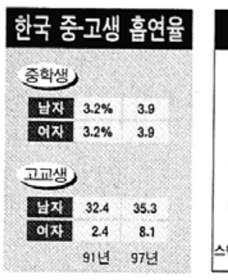
피우면 '수명단축' 끊으면 '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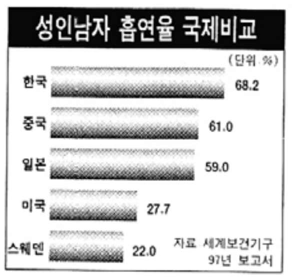
국내 첫 폐암환자 담배피해 소송

한국 성인남성 흡연율 65% '골초왕국'
담배 때문에 매년 3만5천여명 사망

끊으면 천수(天壽), 피우면 1개비에 5분씩 수명단축. '죽음의 연기'를 내뿜는 담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태우는 사람이 늘어만 간다. '골초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까지….

36년간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에 걸린 50대 남자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주목을 끌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흡연율에 대한 각종 지표가 잇따라 공개돼 관심이 모아졌다.





소송을 낸 김모씨(56)는 소장에서 "국가는 재정수입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해악을 끼치는 담배판매를 장려·촉진하는 정책만을 수립했을 뿐, 국민의 보건권 보장을 위한 흡연의 규제·예방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김씨측은 담배인삼공사가 76년 담배에 경고문을 부착하기는 했지만 이는 '면피용'에 불과했을뿐 실질적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현재의 경고문은 89년에야 부착해 소비자에 대한 위험성 고지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정부는 흡연이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규정된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담배 피해 소송은 53년 미국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유럽과 일본에서도 담배회사들과 피해자간 공방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향후 20여년간 2천60억달러(한화 250조원 상당)의 배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피해자 승소율이 높은 편이며, 일본은 세 차례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사례가 있다. 또 프랑스와 대만 등은 미국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중에 있다.

김씨의 이번 소송은 그렇지 않아도 국가가 담배생산 및 판매를 장려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65%를 넘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의 책임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세계보건기구(WHO)에 최종 보고된 한국 흡연실태를 보면 성인 남성과 고3 남학생 흡연율은 단연 세계 최고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68.2%)은 일본(59%) 미국(27.7%) 영국(28%)보다 훨씬 높고, 남고생의 흡연율(35.3%) 역시 일본(22%) 미국(18%)보다 1.5~2배 가량 높다. 한마디로 한국은 골초국가인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3만5천명(폐암 사망자 9천5백명 포함)이 담배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올해 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여성 흡연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흡연실태는 이번 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이같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소송을 놓고 '흡연자 책임론'과 '제조사 책임론'이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물론 음식이든 기호품이든 건강에 조심할 의무는 본인에게 있다. 하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경고와 규제를 가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복지국가 개념의 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고를 게을리한 정도가 아니라 지방재정 수입 일부를 담배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토록 법제화해 실질적으로는 흡연을 권장하는 정책을 펴왔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의 최우선이다. 이번 소송의 전망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은 최소한 국민건강을 모른 체 하면서 세수증대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부부위기'…중년이혼 늘고 있다

긍정적 대화로 관계개선 공동행복 추구

'3쌍이 결혼하고 1쌍이 이혼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8년 인구동태'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남자 40대 초반, 여자 30대 후반의 이혼율이 각각 전체의 13%, 1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의 '부부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견고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해야 할 이 시기에 이 부부들을 이혼법정에 세우는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주된 이혼사유로는 주벽, 불성실, 무책임, 의처·의부증, 성적갈등 등의 부부간 불화가 60%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경제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사무국장은 부부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양쪽이 모두 이기는 동시에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는 윈·윈(win·win)전략을 권유한다. 윈윈전략 부부대화법은 다음과 같다.

▲한사람만의 고민도 공동의 문제다=한쪽이 고민을 토로할 경우 공동의 문제로 보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다. ▲현안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과거의 불만까지 끄집어내면 대화는 언제나 원점에 있다. 구체적 현안에 국한해 원인을 찾아본다. 대화가 성공적이면 점점 크고 포괄적인 문제로 옮겨가게 된다. ▲들어준다=생각이 다르다고 반박하기에 앞서 끝까지 상대의 생각을 들어주는 것은 대화의 필수조건이다. ▲희망을 갖는다=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 들어주는 힘도 커지고, 감정에 치닫는 대신 문제를 객관화해 돌아보고 긍정적으로 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02-752-4227'로 영안실횡포 고발

주부클럽연, 상담창구 개설

'잘못된 장묘문화 고발하세요'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최근 서울 본부에 개설한 종합장례정보상담창구를 통해 상담전화(02-752-4227)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 9개 지부에서도 건전 장묘문화지침 보급 및 불건전 장묘문화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서울·충북·충남·전북·전남·부산·광주·강릉·파주·제천 등 전국 10개 지부를 중심으로 장례절차 및 화장 납골묘 납골당문의, 장의용품 가격, 병원영안실 횡포, 호화분묘 고발 등 상담을 받고 있다.

시론

주부도박과 육바라밀

우리 나라 사람들은 세 사람만 모여도 고스톱을 친다는 말이 있다. 남자들 모임에서는 으레 포커가 등장하고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지 않으면 노인들이 심심해 한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주부 도박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사실이다. 그냥 재미로 하는 놀이가 아니라 그야말로 도박을 위해 도박판에서 도박에 몰두하고 있는 도박꾼들중에 다름 아닌 우리 나라 상류 사회의 주부들이 끼어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다.

하지만 이미 주부 도박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물론 주부 도박단은 우리 나라 주부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부도박 문제를 그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주부는 가장 도덕적인 계층이다. 주부라는 이름은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있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키우고 있으며 남편을 내조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현모양처의 상징이다. 주부는 아내요 어머니 라는 숭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자의 개념과는 다른 가치가 있다.

방귀희

〈솟대문학 발행인〉

> 주부가 흔들리면 사회가 무너진다 악의 유혹 뿌리쳐라

그런데 그런 주부들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단계를 넘어서 법률적으로 제재를 당할 지경까지 되고야 말았다. 언론에서 주부 도박단을 붙잡아 구속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에 아찔했다. 아무리 사회가 부패된다 해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고결함을 지킬 사람 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주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주부들이 도박에 빠져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주부의 의미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주부들을 전업 주부라고 했다. 하지만 왠지 전업 주부 라고 하면 무능한 사람 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전업 주부들은 본의 아니게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차별 때문에 전업 주부들은 할 일을 찾고 싶어 했는데 주부들의 그런 허점을 노리고 도박꾼들이 침투해 들어온 것이다. 가장 깨끗한 물이 가장 쉽게 오염되는 법 이기에 주부들은 무방비한 상태로 빠져 들어갔다. 어찌 보면 주부 도박은 우리 사회의 병폐가 낳은 또다른 병폐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우리를 내적으로 지켜주고 있어야 할 주부들이기 때문에 빨리 수습을 하고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우리 사회가 바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주부들이 악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란 확신이 든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도박판에 끼어들고있고 보면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푸는 것 이다. 보시(布施)를 하다 보면 도박을 하는데 돈을 쓴다는 것이 부끄러워진다.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덕적인 규범을 지키면 지계(持戒)가 되고,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을 참는 일은 인욕(忍辱)이며, 나쁜 일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정진(精進)이다. 그리고 마음의 동요를 가라 앉히고 진실을 찾게 되면 선정(禪定)에 든다. 이렇듯 육바라밀만 잘 실천하면 우리사회에서 주부 도박단 이라는 부끄러운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항상 문제만 부각시키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소홀히 지나친다. 그래서 우리사회는 문제 투성이가 되었다.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항상 부처님 손에 달려있고 보면 우리 불자들이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긴다. 이 땅의 주부들에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육바라밀 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지금부터 해야할 열이다.

건·강·보·조·식·품·허·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익수영진고 시판개시!

선(仙: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푸르름(韋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의 물(水)·불(火)·흙(土)·쇠(金), 네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소멸하여 자식격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8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義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 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람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송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정(強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복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숙성시켜 수천 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종합영양 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 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휴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 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의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이며, 건강보조식품허가**(98.3.31)를 받았다.

앞으로 기적의 우리 지리산 소나무 종합강정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 본사제품
솔선식, 효소정액,
익수영진고
(KBS 6시내고향
99.1.28 방영)

솔효소정액
원액 2,800mℓ
(700mℓ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

솔선식
환약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

익수영진고
옛날 방법으로 1개월간 은은하게 달이며 600g(한근정도)
최고급 보약중의 보약
₩1,000,000원
(약 2개월 분)

■ 구입문의 :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한방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